

함께 가야 할 그 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무직은 ‘의사’에 가까울까? ‘공무원’에 가까울까? 민간의사들은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은 의사로 볼 것이다.

의무직으로 일하는 우리들은 양가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가도 때로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처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보건의료발전에 대해 애정을 갖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약칭 지보의)”에서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대한의협에 부탁드렸을 때는 보건소의 소장 자리가 의무직이 아닌 다른 직렬로 대체되어 가고 있어 위기의식이 만연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보건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와는 무관하게 의사의 길을 걷기만 하던 우리들은 행정적으로도 미숙하여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제약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공분야에 많은 의사들을 영입하고 싶었지만 우선적으로는 의사들이 진료 이외의 행정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관심을 갖고 오신 선생님들은 공무원으로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지 못하여 인물난을 겪게 되었다.

지역의사회에 가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라는 얘기를 자주 들곤 했다. 그러면 나는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시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유능하신 분



하 현 성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회장
은평구 보건소장
gshahs@ep.go.kr

이 많이 들어오셔야 한다고 했다. 진료의 개념을 어느 범주까지 두느냐는 것은 이슈가 될 수 있어도 진료부분을 너무 축소하면 의사들의 역할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의료행정은 보수를 적게 줘도 되는 다른 직렬로 갈아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와 감염병관리, 만성질환 예방사업, 재난대응의료 등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의 경험을 쌓고, 어떻게 지역사회 공중보건을 위하여 역할을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보건 의료행정을 펼쳐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제 정년을 3여년 앞두고 있다. 어언 공중 보건의료에 몸담은 지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사이 많은 보건의료사업을 해 왔는데 이제는 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관주도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 온 내가 아무리 민간하고 잘 지낸다고 해도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선뜻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아 처음에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을 꿈도 꾸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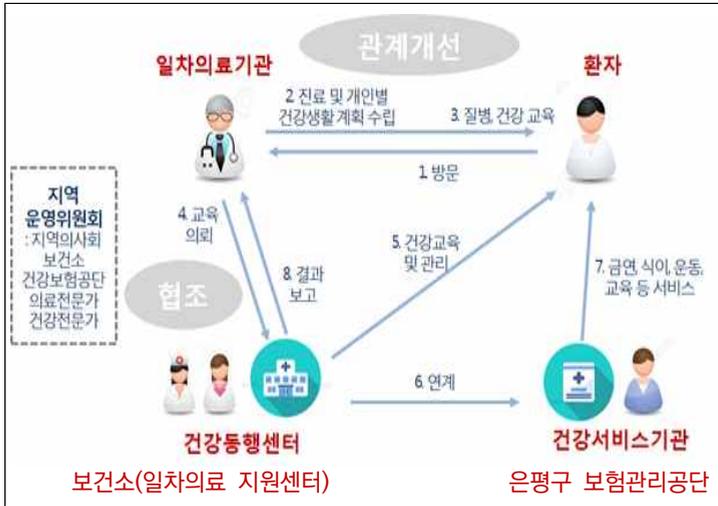


그림. 일차의료 확대사업 모형 |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이 개선되고 열악한 보험체계에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하신 선 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지

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오셨다.

은평구는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 아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민·관이 협력적으로 주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모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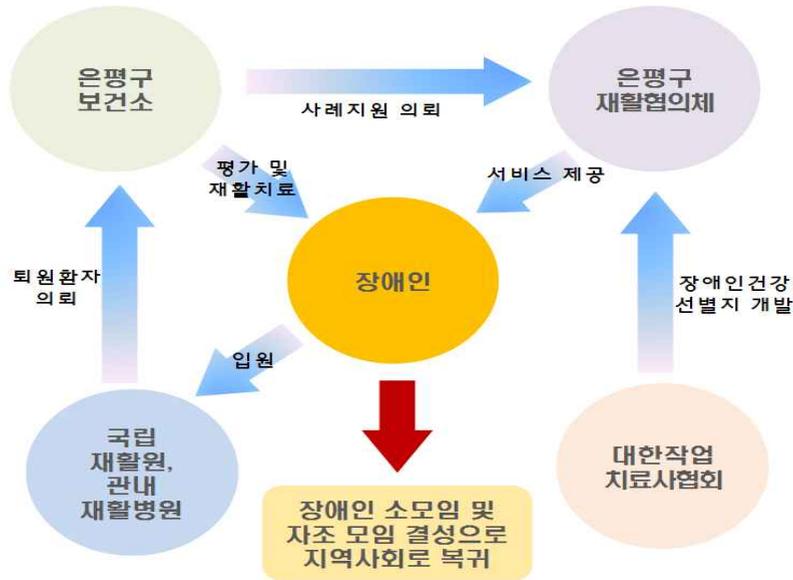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또 한 가지 사업은 재활사업이 있다. 은평구는 시민단체활동이 활발한 곳이고 노인,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재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모두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관이 주관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조직력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협의체 소속 10개 기관 (구산보건지소가 위치한 구산동 주변 건강생태계) |

| 기관명 | 기관 분류 | 기관명 | 기관 분류 |
|------------|--------|----------------|------------|
| 은평구 보건소 | 공공기관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복지시설 |
| 갈현2동 주민센터 | 공공기관 | 시립평화로운집 | 장애인주거시설 |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 시립병원 |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 자치단체 |
| 건강보험공단은평지사 | 공공기관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치료사 협회 |
| 서울재활병원 | 민간재활병원 | 은평구장애인부모회(참관) | 장애인 당사자 단체 |

표. 은평구재활협의체 기관별 역할 |

| 기관명 | 역할 |
|----------------|------------------------------------|
| 은평구 보건소 | · 재활협의체 회의 준비, 방문재활서비스, 사례기록지 관리 |
| 갈현2동 주민센터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례당사자 연계 |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 · 가정의학 전문의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연계 |
| 건강보험공단은평지사 | · 사례 당사자 연계 |
| 서울재활병원 | · 재활협의체 자문, 재활전문 의 진료, 퇴원환자 연계 |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문재활 사례 의뢰 등 |
| 시립평화로운집 | · 장애인 거주 시설, 자원봉사 연계 |
|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 학문적 조언, 방문재활 사례기록지 연구 사업 공동 진행 등 |
| 은평구장애인부모회(참관) | · 장애인 당사자 입장 전달 등 |



Ⅰ 그림. 은평구재활협회의 활동 구조 Ⅰ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사업명 | 은평구재활협회를 기반으로 한 퇴원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사업지역 | 은평구 | | | | | | | | | | |
| 기간 | 2017.11. ~ 2018.5. (7개월) | | | | | | | | | | |
| 비전 및 목표 |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이 행복한 은평 만들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전략</th> <th>추진 목표</th> </tr> </thead> <tbody> <tr> <td>퇴원 장애인 연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재활협의회 등 지역자원 활용 재활사업 운영 • 국립재활원 및 퇴원 연계 병원 등 외부 자원 적극적 활용 </td> </tr> <tr> <td>장애인 당사자 건강역량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주도형 소모임 운영 • 장애인의 건강역량을 강화하여 재활사업 참여 기회제공 </td> </tr> <tr> <td>근거 중심 재활사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DAS 건강선별검사 전후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파악 • 대학 및 학술기관과 연계하여 평가, 치료기술, 프로그램 개발 </td> </tr> <tr> <td>맞춤형 재활치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신체, 인지, 일상생활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 제공 </td> </tr> </tbody> </table> | 전략 | 추진 목표 | 퇴원 장애인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재활협의회 등 지역자원 활용 재활사업 운영 • 국립재활원 및 퇴원 연계 병원 등 외부 자원 적극적 활용 | 장애인 당사자 건강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주도형 소모임 운영 • 장애인의 건강역량을 강화하여 재활사업 참여 기회제공 | 근거 중심 재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DAS 건강선별검사 전후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파악 • 대학 및 학술기관과 연계하여 평가, 치료기술,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재활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신체, 인지, 일상생활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 제공 |
| 전략 | 추진 목표 | | | | | | | | | | |
| 퇴원 장애인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재활협의회 등 지역자원 활용 재활사업 운영 • 국립재활원 및 퇴원 연계 병원 등 외부 자원 적극적 활용 | | | | | | | | | | |
| 장애인 당사자 건강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주도형 소모임 운영 • 장애인의 건강역량을 강화하여 재활사업 참여 기회제공 | | | | | | | | | | |
| 근거 중심 재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DAS 건강선별검사 전후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파악 • 대학 및 학술기관과 연계하여 평가, 치료기술, 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 맞춤형 재활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신체, 인지, 일상생활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 제공 | | | | | | | | | | |
| 사업내용 | <p style="text-align: center;">은평구재활협회를 기반으로 한 퇴원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구축</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중도장애인 입원 후 퇴원환자 보건소 연계 의뢰</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② 은평구 보건소 접수 및 ICF 모델 기반 장애인 건강선별검사를 이용한 평가 및 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③-1 보건소 등록 관리 ③-2 재활협의체 의뢰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④ 장애인 소모임 등 자조조직 결성으로 중도장애인 지역사회 복귀</p>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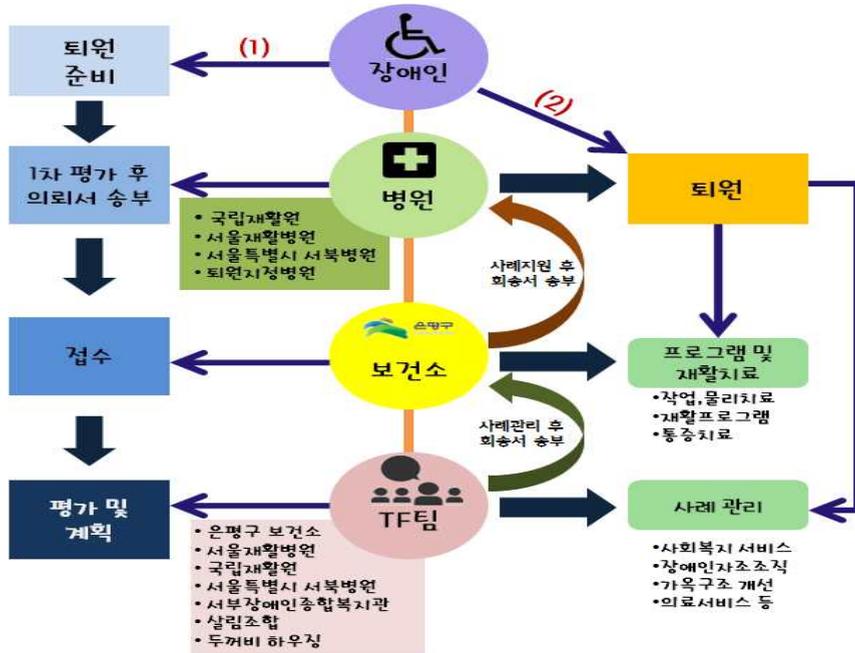


그림. 은평구재활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퇴원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다음은 서울시가 아직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 중 인 어르신 안심돌봄 건강관리사업의 모델이다.

이는 취약계층 어르신 대 상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의 의학적 포괄평가로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집중관리, 낙상위험도, 영양평가를 하고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영양지원도 하게 되는 것인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의사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제 질병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는 인본주의적 돌봄 서비스체계로 가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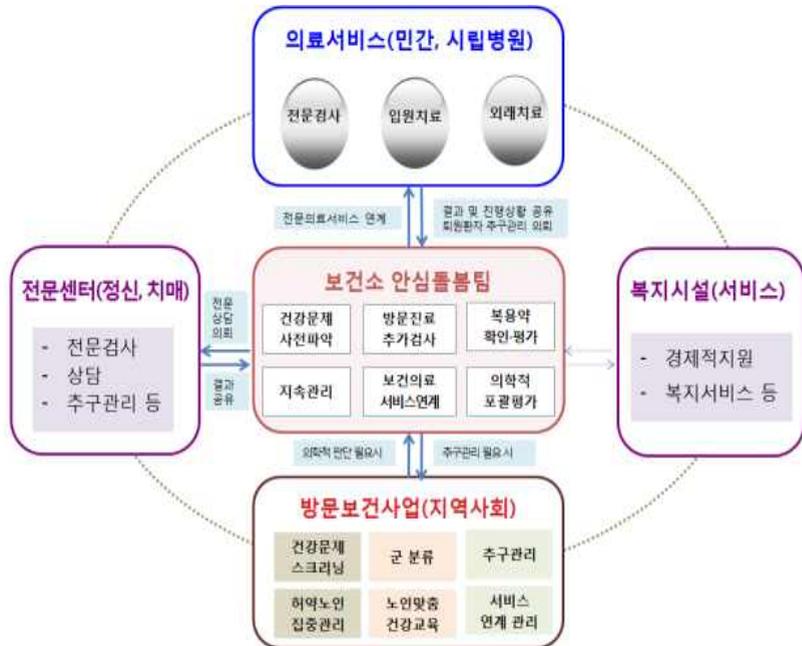


그림. 어르신 안심돌봄 건강관리사업 모델

요즘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모델인 community care가 화두다.

이는 정신보건사업의 모델이기도한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담을 완화시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 탈원화해서 지역사회가 다함께 이웃의 아픔을 돌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하는데 민과 관이 함께 하려면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MERS 이전에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생각했다면 MERS 이후에는 공중보건을 위한 업무라면 민간에서 하는 업

무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의사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처럼 민간과 공공의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의창(醫窓)에서만 바라보던 세상을 창밖으로 나와서 땅을 밟고 일반사람들이 사는 소확행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 다시 VR(Virtual Reality)로도 못 보던 세상을 보길 바란다.

제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향후에 더 많은 수강생들이 좋은 시간을 공유하였으면 좋겠다.